



12면

소설가 한강, '노벨문학상' 수상

전주매일

www.jjmaeil.com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4년 12월 12일 목요일 (음 11월 12일) 제3644호

대표전화 (063)288-9700

내년 전북 국가예산 9조2244억원

도, 3년 연속 9조원대 확보 인프라 구축·신산업 육성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

전북특별자치도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2025년 국가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9조2,244억원을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확정 예산 9조1,639억원보다 2,081억원 증가한 수치로, 3년 연속 9조원대 예산을 달성하는 성과이며, 어려운 재정 여건과 정치적 상황 속에서 국회의 정부예산 감액 의결에도 불구하고, 전북특별자치도가 끈질긴 노력을 통해 이루어낸 결과라 더욱 주목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정부의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과 건전 재정 기조 속에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여기에 탄핵정국으로 인한 여야 간 극한 대립으로 예산안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증액 요청 사업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등 정치적 상황도 녹록하지 않았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초부터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정부 예산안 편성 단계부터 기재부와 각 부처를 상대로 끈질긴 설득과 협의를 이어갔다.

특히 새만금 사업, 미래 신산업 육성, 지역 현안 해결 등 주요 사업들을 중심으로 논리를 개발하고 설득력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사업을 건의했으며,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예산 확보에 힘을 모았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부처와 기재부 예산 반영 단계에서부터 지역 핵심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고, 도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며 긴밀한 협력을 보여주었다.

특히 새만금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에 주력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에 632억원, 새만금 신항만 건설에 1,382억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에 4,190억원 등 주요 SOC 예산 6,660억원을 확보했다. 또한 새만금 내부 개발에 515억원, 핵심 광물 전용 비축 기지 구축에 1,026억원, 새만금 산단 용 폐수 공동 관로 구축 지



11일 전북특별자치도청 기자실에서 최병관 행정부지사가 2025년 국가예산 및 현안법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원에 255억원 등 기반 조성 사업 예산 2,038억원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새만금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민간 투자를 유치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미래 신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전북연구개발특구 첨단 바이오 육성 R&D 사업에 50억원, 첨단 바이오 의약품 개발 인프라 구축에 10억원을 확보해 첨단 바이오 의약품 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극한 환경 대응 차세대 BESS 고신뢰성 검증 및 안전 기술 개발 R&D에 25억원, 디지털 트윈 기반 사용 후 배터리 재자원화 테스트베드 구축 R&D에 11억원을 확보하여 기술 혁신과 신재생에너지 연계 인프라 강화를 추진한다.

탄소 산업 분야에서는 탄소 제품 표준 인증 토탈 솔루션 기반 구축에 5억원, K-carton 플래그십 기술 개발 R&D에 51억원을 확보해 기술 개발과 생태계 조성을 지원한다.

디지털 전환 및 미래 기술 선점을 위한 예산도 확보했다. 하이퍼트브 핵심 기술 개발 R&D에 37억원, 미래 방산 선점 기술 고도화 R&D에 30억원, 농업 기계 디지털 전환을 위한 개방형 A-SW 오픈 소스 및 협력 개발 서비스 플랫폼 구축 R&D에 9억원 등을 확보하여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

고 미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 사업 예산도 확보했다. 호남고속도로 확장 공사(김제-삼례) 실시 설계비 18억6,000만원, 무주 살천~무주 구간 국도 건설 사업 5억원, 익산역 확장 및 선상 주차장 조성 10억원, 전주역 시설 개선 80억원 등 도로, 철도, 상하수도, 안전망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 예산을 확보해 도민들의 생활 편의와 안전을 증진시킬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 인프라 확충에도 힘썼다. 문화 시설 분야에서는 스마트 콘텐츠 창출과 첨단 기술을 활용한 역사문화 공간 혁신을 위한 예산 284억원을 확보했으며 체육 시설 분야에서는 지역 스포츠 활성화와 체육 시설 현대화를 위한 예산 196억원을 확보했다. 또한, 관광 인프라 분야에서 관광지 개발과 지역 특화 관광 자원 발굴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예산 198억원을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관광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국가예산 확보에 대한 아쉬운 부분이 있음을 밝혔다. 특히 국회에서 증액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새만금 내부 개발, 환경·생태 용지 조성 등 신속한 예산 투입이 필요한 국책 사업 예

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으며, 바이오, 이차전지 관련 사업과 지역 발전을 견인할 창업 인프라, 문화 시설 등 신규 사업이 다수 반영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도는 이러한 아쉬운 점을 극복하고 지역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먼저, 미반영 사업들은 내년 정부 추경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공모 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부족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2026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신규 사업 발굴에도 박차를 가해, 예비 타당성 조사, 국가 계획 반영 등 사전 절차를 준비하고, 2026년, 2027년 신규 사업 발굴을 병행해 미래를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중자 산업 혁신 클러스터 조성, 국가 식품 클러스터 2단계 확대 조성 등 신규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속하게 준비해 대형 국책 사업 예산 확보에 노력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확보된 국가 예산으로 새만금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며,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는 한편, 정부 추경 예산 확보, 신규 사업 발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만희 기자



11일 전주 더메이 호텔에서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 전문가 세미나 열린 가운데,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이은미 원장(사진 오른쪽에서 다섯번째)을 포함한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AI·빅데이터 기반 접목 건강기능식품 상용화 모색

바이오진흥원,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 전문가 세미나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 이하 바이오진흥원)은 농생명 바이오 관련기관 및 기업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 전문가 세미나를 11일 전주 더메이 호텔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우수건강기능식품을 AI·빅데이터 기반 기술과 접목하여 상용화 플랫폼을 구축하고 시장진입 가속화를 통해 관련 산업의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전문가 강연에서는 고려대학교 정세영 교수가 'AI시대 규제 과학의 혁신방안'을 주제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확장과 신기능성 후보물질 발굴시 AI와 빅데이터 기술의 활용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농촌진흥청 안전준서기관은 '빅사이언스 시대 국가 데이터정책'을, 전북대학교 정길도 교수는 '바이오네트워크 기반 소재발굴'을 주제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임상실험 최적화가 가능함을 강조해 참석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이끌어냈다.

이어진 패널토의는 채한정 센터

장(전북대학교 유효성평가센터)을 좌장으로 채수완 센터장(전북대학교병원 기능성식품임상시험센터), 권중기 교수(전북대학교), 김석호 교수(군산대학교), 신대근 대표(기술기획사업화전략원), 강병철 상무(인실리코젠)가 참여해 건강기능식품의 규제완화와 AI·빅데이터의 기술활용 방안 등에 대한 열띤 토의가 이어졌다.

최근 우리 사회는 건강기능식품은 산업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안전성과 기능성 충족을 위한 장기간의 개발과정이 소요되고 낮은 인허가율 등 규제 리스크가 커져 이의 규제완화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은미 원장은 "이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연구와 사업화 전략이 필요한 시기"라 강조하며 "우리 바이오진흥원은 이 과정에서 기업과 연구, 그리고 지역과 산업을 연결하는 중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의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새만금

전주매일 캠페인